

코로나19 관련 주요 해외 동향(6월 1주차)

1. 해외 동향

국가	주요 동향
미국	<p>유통·소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resight Research사의 US Online Grocery Survey 2021 : Post-Surge Prospects 연구 자료에 따르면 현재 미국 소비자의 약 60%가 식료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고 있으며, 이러한 쇼핑객 중 동일한 비율이 COVID-19 위기가 가라앉아도 동일한 빈도로 구매할 것으로 조사되었음. Coresight Reserarch사에서 지난 4월 여론 조사에 참여한 미국 성인 1,652명 중 59%가 지난 12개월 동안 온라인 식료품을 구매했다고 답했다고 함. 이는 2020년 52%, 2019년 36.8%에서 증가한 수치임(5.24/Supermarket News)
	<p>바이어·수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사) 식품매장 임대비 및 창고 임대비 납부를 위해 한국산 수입 물량을 적절히 수입해 판매해야 하나 운송비가 3배로 치솟고 선사 확보에 어려움이 지속되어 필요한 물량을 적절히 공급 못하고 있어 어려움이 많음. ○ (H사) 운송비 부담이 커지고 있음.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코로나 19로 늘어난 HMR 및 냉동식품 수요에 적기 대응을 위해 수입 물량을 늘려서 현재 자사 물류 창고 외 추가로 물류 창고를 임대하여 사용중. ○ (S사) 알로에 음료 등 마진율이 적은 상품들은 수입 홀드 중임. ○ (W사) 해상물류비 상승에 따라 일부 판매 제품 가격 조정 중 ○ (J사) 컵라면, 떡볶이 등 HMR 수요는 여전히 높고 물류비 상승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하나 코로나19로 인한 다른 애로사항은 없음 ○ (W사) 해상물류비 상승에 따른 가격 상승을 완화하기 위해 상품의 부피를 줄일 수 있는 포장방법 등 개발 중
	<p>행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 토론토 Sial Canada 박람회 100% 온라인으로 전환 (캐나다 참가사도 온라인 참가. 캐나다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른 결정)
베트남	<p>유통·소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사(유통업체/하노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차 확산이 심한 박닌, 박장 지역 출입시 하루전 허가가 필요해지면서 기존 1~2일에서 2~3일 정도로 물류유통이 다소 지체되고 있으나, 항구로부터 하노이 시내로의 물류유통은 수시간 정도 지체되는데 그쳐 크게 영향 없음 - 최근 라면, 핫반 등 즉석식품류 매출이 30% 정도 증가하면서 이에 대응하여 한국산 즉석식품류 수입을 기존 대비 약 40% 추가발주 예정 ○ L사(유통업체/호치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30일 코로나19 총리령 15, 16 지시 이후 사재기가 급증하였으며, 생필품 보다는 신선식품,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구매량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장 방문객의 주요 사재기 품목은 고기, 생선, 계란, 캔푸드, 라면 등이며, 돼지고기 수급이 많이 부족한 상황임
	바이어·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사 (가공식품 수입바이어/하노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4차 확산 영향으로 최근 라면, 피자 등 냉동제품 수요 증가 - 특히, 올해 상반기 신규 한국산 냉동식품(9개/컵피자, 면류 등) 출시·판매 및 코로나19 4차 확산으로 인한 가정 내 체류시간 증가 영향으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입량을 지속 확대할 예정임 ○ V사 (음료류 수입바이어/호치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삼 가공 음료류 및 배즙은 코로나19 이후 건강에 대한 관심도 제고에 따라 매출량 소폭 상승하였으나 코로나 상황 악화에 따른 매장 판촉 행사 축소 및 제약으로 매출 감소 예상 ○ C사 (음료류 수입바이어/호치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식품(두유) 취급 업체로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북부 대부분의 대리점이 문을 닫아 유통에 차질이 생기고 있으며, 남부쪽은 매출에 큰 영향은 없음 / 수입시 통관 문제는 별도 없음 ○ C사 (유아식품 수입바이어/하노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식품은 현재 코로나19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 매출액은 기존과 비슷 -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① 귀향·격리 등으로 인한 운송업체 인력 부족, ② 제조업체 운영중단에 따른 운송물량 감소로 인한 운송횟수 감소 ③ 심각한 일부 도성내 출입 금지로 인한 우회에 필요한 시간(1~2일 추가) 및 비용 추가 소요, ④ 운송기간 증가에 따른 요거트와 같은 냉장보관식품의 품질 저하가 발생되고 있어 향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 ○ H사 (주류 수입바이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져 식당·노래방 등 운영 중단되면서 납품 중지되어 매출액 급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30. 기준 일일 확진자 250명(지역감염 249), 총 확진자 7,107명(사망 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4차 확산으로 인해 4.27~5.30까지 총 4,251명 확진자 발생(지역감염 4,030 / 해외유입 221) ○ (하노이) 하노이시 인민위원회 긴급발표(5.24)를 통해 식당 미용실 등 다중 서비스 시설 임시중단 조치 및 기업 대상 재택근무 권고 등 ○ (호치민) 특정종교단체 관련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면서 호치민시 인민위원회에서 긴급회의(5.30)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5.31부터 2주간)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30 저녁 기준) 호치민 142명, 롱안 3, 띠이닌 1, 박리우 1 - (시 전체) 사교행사 중단, 한 장소에서 20명 이상 모임 금지, 직장·학교·병원 외부에서 10명 이상 모임 금지, 기업에 재택근무 권고 등 - (Go Vap지구, 12군내 Thanh Loc Ward) 공공장소에서 2명 이상 모임 금지, 비상시에만 집을 떠나 음식·의약품 구입 가능 등 강화
태국	유통·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실업률 최대치 및 소비자 구매력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국상공업고용주연합(Econ Thai), 4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3차 유행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금년 1분기 실업률은 2%로 역대 최대치 기록, 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업이 증가하고 불완전 고용 증가로 소비자 구매력

		<p>감소 우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조사 전문업체인 Ipsos는 동남아시아 6개국 3,000명을 대상으로 팬더믹 이후의 소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태국 응답자의 80%가 가구 내 지출을 줄이겠다고 답함 - 가계 소득 감소로 인해 소비자들이 고가 상품의 구매는 줄이고 다중이 이용하는 혼잡한 상점을 피하는 것을 선호하는 추세로 사치품 보다는 음식, 위생제품 등 생필품 위주의 소비 확대 및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현금 없는 결제수단 사용 증가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31 기준 일일 확진자 5,485명(방콕 1,356명), 총 누적 확진자 159,792명 - 방콕 및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 숙소, 재래시장 등 집단 밀집 지역에서 감염 사례가 확산되고 있음 - 태국에는 약 400~500만 명의 이주 노동자들이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건설이나 제조업 그리고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방콕 및 주변에만 409곳의 건설 노동자 숙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태국 정부 국가 비상사태령 유지중('20.3.26~'21.7.31)
인도네시아	유통·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네시아 소매대기업 헤로 슈퍼마켓 산하 자이언트 슈퍼마켓, 7월말까지 전체 폐쇄 * 인도네시아 전역 총 75개 매장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진자수(기준일 5.30) : 1,816,041(신규 6,115), 사망 50,404 - 인도네시아 최대명절 르바란 명절 이후 역귀성객 영향으로, 보건부는 6월 중순부터 향후 3개월간 코로나 급증 예상 ○ 사회활동제한조치(PPKM Micro) 6.14일까지 지속 - 3인 이상 모임 금지, 식당/카페 수용인원 50%, 쇼핑몰 운영시간 11:00-21:00 등
싱가포르	유통·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정책이 5.16~6.13까지 시행중으로 식품 매출 급증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진자수(기준일 5.30) : 62,028(신규25), 사망 33 -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정책 시행 중 * 5.16~6.13 기간 내 집합 최대인원 2명 제한(기존 5명), 기본 재택근무, 다중시설 최대 수용인원 정원대비 25%(기존 50%), 외식금지(배달만 가능), 초중고 온라인 수업 전환 등 실시

2. 통관 · 검역 이슈

국가	이슈내용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저지 엘리자베스항의 경우 배가 항구에 도착 후 Arrival Notice(포트에 배를 접안시키는 것, 부두에 배를 대는 것)를 이전에는 2~3일 전에 줬었으나, 현재는 물동량이 많아 날짜가 임박해서야 발급해 주고 있음 ○ 뉴저지 엘리자베스항의 경우 한국에서 출발한 컨테이너가 평상 시 보다 20여일 늦게 항구에 도착 중 ○ 항만 인력이 부족해 항구를 빠져 나가야 하는 물량이 제 때 못빠져 나가고 있으며, 소비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물동량 적체가 심해 현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 ○ 롱비치항 '21. 7. 1일부터 Green Ship Program 확대 시행/친환경적 선박 대상으로 최대 USD 9,000 크레딧 제공
베트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노이 인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상(또는 항공)으로 수입되는 품목 통관시 식품 검역 자체는 강화되지는 않았음 - 다만, 최근 코로나19 4차 확산으로 세관내 격일 재택근무 실시에 따라 점검인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면서 통관 소요시간이 최대 1~2일 정도 증가 ○ 호치민 인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로 인한 검역절차 강화, 소독 등에 따라 통관 검토 과정이 지연되고 있음 (약 1~2일 추가 소요 / 구체적 명시 시간 없음) - 통관 이후 내륙화물 이송시 호치민 일부 지역 격리로 이동 제한에 따라 애로 발생

중국 주요 지역해관 냉장냉동식품 수입통관 현황(5.27)

지역해관	냉장냉동식품 수입가능 여부	냉장냉동식품 핵산검사 여부 (바이어 대상 의견조사)	냉장냉동식품 통관 소요 시간
베이징 (北京)	불가	-	-
텐진 (天津)	가능	실시 (샘플링 비율 : 미공개) * 품목별, 국가별 편차 큼	3~5일 (핵산검사X), 7일~10일 (핵산검사O) * 기존 1일
상하이 (上海)	공항	실시 (샘플링 비율 : 약 50~70%) * 파프리카 등 냉장식품 약 50%, 냉동식품 70%	1일 (핵산검사X), 7일 (핵산검사O) * 기존 1일
	항구		3~5일 (핵산검사X), 15일 (핵산검사O) * 기존 3~5일
광저우 (广州)	가능	실시 (샘플링 비율 : 미공개)	2~5일 (핵산검사X), 7~15일 (핵산검사O) * 기존 1일
칭다오 (靑島)	가능	일부 실시 - 냉동수산/냉동육류 : 100% * 파프리카 등 채소와 과일 상온/냉장 일반가공식품 냉장 수산물은 핵산검사 미진행	1~2일(핵산검사X), 1~2주(핵산검사O)
웨이하이 (威海)	가능		* 파프리카와 같은 냉장 채소류와 아이스크림 등 냉동 일반가공 식품은 해관 통관시 핵산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나 시장감독관리국 요구사항으로 전용창고 입고 후 소독과 핵산검사를 거쳐야 유통 가능
스다오 (石島)	가능		

※ 통관시 검사 : 수입신고번호에 해당되는 컨테이너별 검사 비율(샘플 채취)

※ 상온 보관 식품은 현재 중국 지역해관의 검역 강화 대상이 아님